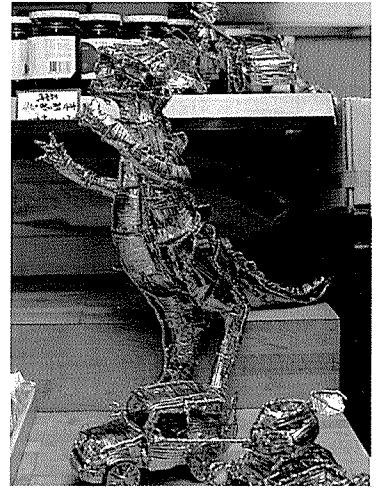


## 칼라 타이로 엮어 가는 예술혼 변장섭 파리 베이커리 사장

칼라 타이 소비가 제일 많은 제과점은 어디일까? 바로 신대방동에 위치한 파리 베이커리다. 변장섭 사장(58세)이 칼라 타이로 엮어내는 조형 작품 때문. 500개들이 칼라 타이 한 봉지가 반나절도 안되는 사이에 없어져 버린다. 계산대 옆을 지키고 있는 중세기사를 비롯하여 장식장 한켠에 자리잡은 각종 항공모함, 뚜껑이 열리는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해병대, 을지문덕 장군, 홍명보에 이르기까지... 약 5cm의 작은 칼라 타이로 이뤄내는 그의 작품 세계에 제약이란 있을 수 없다.



각종 복지관과 문화센터에서 칼라 타이 공예 강사자리를 제의받을 정도로 변장섭 사장의 솜씨는 정평이 나있다. 집이건 공장이건 고장난 각종 기계를 손수 고칠 정도로 손재주가 뛰어난 그가 제품 포장중에 칼라 타이로 자전거를 만들어 본 것이 오늘에 이르게 한 계기다. 마음에 안드는 작품은 몇번이고 수정 작업을 한다는 변장섭 사장. 시간가는 줄 모르고 작품에 몰두하다 보니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 한번 작품에 몰두하면 퇴근 시간을 훌쩍 넘길 때가 부지기수다. 그 때문에 그의 건강을 염려하는 부인과 애정어린 말다툼을 벌이곤 한다. 혈압 때문에 고생하던 그가 몇 해전에는 심각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돼 큰 고생을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취미생활을 넘어선 칼라 타이 공예는 그의 건강까지 되찾아 주었다. 물론 기(氣)치료를 받은 덕도 있지만 이렇게 자신만의 작품세계에 몰두하다 보면 어느새 몸이 가벼워짐을 느낀다는 변장섭 사장. 이야기를 나누는 그 순간에도 행복한 미소를 머금고 변장섭 사장의 손은 부지런히 칼라 타이를 엮어 간다.

지난 크리스마스에는 칼라 타이 공예품을 사은품으로 제공했는데 그것을 받았던 고객이 MBC에 제보. 지난 5월 28일 <TV특종 놀라운 세상>이란 프로그램에 '빵 봉지 끈 예술가'로 약 20분간 소개되었다. 그 이후 사인공세는 물론, 그에게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문의가 전국에서 쇄도하고 있다. 그의 작품을 보기 위해 일부러 제과점을 찾는 고객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각종 전시회 제의도 줄을 잇는다. 오래 전부터 유명 조각가로부터 받은 공동 작품 전시회 요청도 건강 문제로 미뤄 왔으나 이제 본격적인 작품활동에 들어가 올 가을 무렵에는 개인 전시회도 가질 예정이다. 전시회를 열려면 작품 수가 최소 300개가 되어야 하지만 그의 작품을 탐내는 고객들에게 한 개씩 선물하는 통에 작품이 쉽사리 모이지 않아 고민이라고 한다. 작품을 선물한 적은 있어도 결코 돈을 받은 적은 없다는 변장섭 사장. 갓 구워낸 빵 만큼이나 따스한 예술 혼을 가진 그의 작품세계의 무한한 발전을 기대해 본다.

<취재 / 김민정 zenith@mbakery.co.kr>

